

직물공정

직물은 날실과 씨실을 교대로 겹쳐서 단단히 고정시킨 것입니다. 한 가닥의 실을 루프 모양으로 엮어 만드는 뜨개질과는 대조적입니다.

도카마치에서 뜨개질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,200~5,400 년 전으로 안긴(編布)이라고 불리는 소박한 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거친 식물섬유의 실을 사용한 것으로, 대부분 시나노 강 유역에 많이 자라는 췌기풀과 식물 저마(모시) 등이 사용되었습니다. 초기의 직조는 목제 횡목에 빗모양 홈을 낸 수평형의 원시적인 직조기를 사용했습니다. 날실을 홈에 고정한 다음, 직조자는 한 올의 씨실을 날실 사이로 통과시키고, 그 위에 날실을 되접는 방식으로 직물을 짚습니다.

또, 기원전 2세기경에는 종광을 갖춘 직조기가 등장했습니다. 종광이란 씨실에 수평으로 삽입된 막대로, 한 번에 여러 가닥의 날실을 들어 올려 씨실을 췌 북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 이것 덕분에 방직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. 이후 방직과 직조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얇고 더 촘촘하게 짜인 직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, 이를 에치고 조후라고 불렀습니다. 저마의 섬유를 방추로 꼬아서 더 튼튼하고 더 가는 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
완성된 직물은 흰 눈 위에 펼쳐서 자외선을 쬐게 했는데, 이 과정을 통해 직물은 더 튼튼해지고 색은 더 하얗게 되었습니다. 이 공정을 '유키자라시'라고 부르며, 오늘날까지도 에치고 조후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.